

美 대선에 출렁이는 비트코인... 단기 변동성 주의해야

10월에만 14% 상승... 1억 돌파
美 대선구도 박빙, 불확실성 커져
차익 실현 나서는 투자자 증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비트코인 가격이 10월에만 14% 상승하면서 1억원을 돌파해 '업토버(Uptober)'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11월5일)이 다가온 만큼 단기적 가격 조정 후 최고가 경신을 위한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6개월 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1일 8100만원(6만2000달러)으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은 31일 1억130만원(7만2000달러)까지 상승했다. 한 달 사이 14%가 오르면서 올해 역시 업토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업토버는 올라간다는 뜻의 '업(Up)'과 10월의 '옥토버(October)'를 합친 말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평균 23% 상승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는 14% 상승했지만, 지난달 최저가(5만9000달러)로 계산하면 22% 상승해 평균에 근접하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는 6년 연속

으로 업토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토버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때문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친화적 발언과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 규제 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 왔다면,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촉진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후보 역시 현 바이든 정부 대비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대선 결과가 나와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단기적 변동성은 심한 것으로 보인다.

1억100만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960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접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후보 재선 불확실성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반응한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많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는 '크립토 프리지던트'를 천명하며 수차례 가상자산 강경 지지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있던 해마다 4분기부터 다음 해까지의 상승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가상자산 연구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12만5000달러(약 1억6585만원)까지, 카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7만5000달러(약 9951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은행 예대마진 2개월 연속 확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733조
연말 이후 예대금리차 축소 전망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대금리)이 2개월 연속 확대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전과 비교해 1조114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신청이 줄어든 영향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까지 확대되다가 ▲9월 6조6029억원 ▲10월 1조1141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감소해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5조6687억원으로 한달 사이 1조923억원이 늘었다. 9월 5조9148억원에서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예대마진이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대금리간의 격차로 은행의 수익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고정금리는

1일 기준 3.75~6.15%로 9월 초(3.68~6.08%)와 비교해 상·하단 모두 0.07%포인트(p) 상승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고정금리 하단은 4.09~4.47%로 4%대를 형성하고 있다. 5개 은행의 주택담변동금리는 4.57~6.67%에 이른다.

고정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9월 초 3.330%에서 11월 초 3.304%로 0.026%p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예대금리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5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상품 최고금리는 연 3.15~3.55%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12일(3.15~3.80%)과 비교하면 상당기준 0.25%p 내렸다.

이로인해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6월 0.53%에서 7월 0.43%로 떨어진 뒤 8월 0.58%, 9월 0.75%로 올랐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의 예대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는 높아진 영향이다.

은행권에서는 연말 이후에야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표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되고 예대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예대금리가 먼저 내려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 뚜렷이 보인 후에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는 이 상황(예대금리차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퇴직연금, KB증권으로 똑딱! 오세요

현금으로 바꿀 필요 없이,
갖고 있는 연금상품 그대로 옮겨주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작되니까요

퇴직연금도,
커져라 똑딱! 깨비증권

ETF, 채권, 리츠 등
다양한상품 투자가능

비대면 가입 시
IRP제도수수료 평생 무료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모바일에서 연금계좌
24시간 개설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082호(2024.10.11~2025.10.10)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IRP 수수료는 연 0.20%~0.25% (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 ETF 거래 시 HTS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0.1278%+2,000원, 모바일 0.1978%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 IRP 계좌개설 24시간 가능(단, 23:40~00:10 제외) *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 이관·수권회사 공통 판매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